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9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최태원 “산업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정비해야”

(대한상의·SK그룹 회장)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상의, 국회-경제계 협력체계 구축
기업의견 수렴·입법 정책과제 검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국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롤 세터로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변화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와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내 변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상황에 맞춰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관계자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 ‘플래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발전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와 국회는 이날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업 현장의 의견을 국회의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체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국회와 대한상의는 이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산업과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는 출범식에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동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담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원관희 기자 wkh@



SK하이닉스, ‘풀스택 AI 메모리’ 전략 강화

메모리 공급자에서 AI 설계자 도약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개별 제품 공급을 넘어 시스템 차원의 ‘풀 스택 AI 메모리’ 전략을 강화한다. 에이전틱 AI 확산에 맞춰 3D 적층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고대역폭플래시(HBF) 등 다양한 메모리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일 경기 이천캠퍼스 수펙스센터에서 ‘AI 시대 Golden Time, AI Memory Solution Creator가 세상을 바꾸는 지금’을 주제로 ‘2026 SK하이닉스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관점을 밖에서 안으로(Outside-in) 전환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고객과 파트너의 시선에서 다시 보고 AI에코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찾아볼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메모리 시장은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는지 경쟁하는 ‘직선도로’였다면 현재는 시시각각변하는 ‘곡선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며 “내부 역량뿐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

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AI가 반응형에서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서 메모리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AI가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태 정보가 늘고 접근 특성도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범용 메모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풀 스택 AI 메모리’ 전략을 통해 변화에 대응한다. 3D 스택 D램과 HBM, HBF 등을 워크로드에 맞게 조합하고 AI 서비스·소프트웨어·가속기 등 생태계 파트너와 시스템 레벨에서 공동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메모리 공급자를 넘어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함께 설계하는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메모리 기술로는 3D 기술이 제시됐다. 소자 미세화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시스템과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에 따른 시간과 전력 소모가 증가하면서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버스 대역폭 극대화, 초단거리 전송, D램 주변회로의 로직 파운드리 활용 등을 주요 기술 방향으로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목동 오피스텔 청약 3800여명 몰려 입지 장점·낮은 대출문턱 ‘흥행몰이’

목동윤슬자이, 청약 경쟁률 5.81대 1
30억~60억 이상 고가에도 수요 확인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30억원 안팎부터 최고 60억원이 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 청약에 4000명 가까이 몰렸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보다 ‘수요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통설이 이어졌다. 서울 목동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2006년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축, 여기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목동윤슬자이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81대 1로 집계됐다. 651실 모집에 총 3788명이 신청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목동윤슬자이는 전용 115㎡A가 118실 모집에 1030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8.73대 1로 가장 높았다. 대형인 전용 198·202·203㎡ 27실 모집에는 5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1대 1로 가장 낮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옛KT 목동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는 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복합개발로 들어서면서 전체가 일반 청약물량으로 나왔다. 전 호실에 오픈형 발코니를 적용하고, 중대형 평형



‘목동윤슬자이’ 건본주택 내부 모형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더피알

으로만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를 겨냥했다.

청약 전부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호갱노노에서 주간 방문자수 1위를 기록했고, 건본주택에도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붐볐다.

특히 목동윤슬자이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했으며,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분양가는 115㎡A 타입이 33억4400만원이며, 203㎡A D는 67억9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본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가능하다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

되며, 대출금리는 연 2.5%로 제시했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30년 12월로 공고됐다. 목동현대하이퍼리온2차가 지난 2006년 입주했음을 감안하면 지난 20년간 신축은 아예 없었으며, 목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지만 입주까지는 빨라야 7~10년 안팎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한 청약 전문가는 “일대 신축 수요가 몰렸지만 규제 지역에 들어서며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도 제한된다”며 “청약 경쟁률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계약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 美 테일러 공장, 테슬라 AI칩 등 ‘풀개파’

브로드컴 등 글로벌기업 수주 이어져
사업 반등 기대감… 추가 증설 움직임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 가동 전부터 2나노 생산 물량을 사실상 모두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단 공정 고객 확보에 이어 추가 증설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파운드리 사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은 가동을 앞두고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를 비롯 브로드컴의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영국 Arm의 스마트 기기용 AI 칩 등 2나노 수주가 이어져 ‘풀개파’인 것을 알렸다.

테일러 팹의 초기 생산능력은 웨이퍼 투입 기준 월 5만장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을 2나노 중심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선단공정 수주 확대를 전망했던 가운데 실제 고객 확보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2나노 수주 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8나노 이하 선단공정 가동률도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초기 물량을 확보하면서 추가 증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1기 가동을 준비하는 동시에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연말 2기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다. 주요 장비 협력사에는 2기 팹에 투입될 생산설비의 안전성 인증을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테일러 1기의 초기 물량을 기반으로 수출과 양산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추가로

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테일러 2기 물량 확보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확보한 물량을 안정적인 가동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꼽는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고정비와 감가상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미세공정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고객 물량을 확보해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 공정 일수록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이 큰 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수익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첫 투자 송금 규모·시기 확정된 바 없어”

» 1면 ‘1·2호 사업에 알래스카’서 계속

또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뒤 이달 말 약 22억 달러를 송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절차가 한미 전략적 투자 이해각서(MOU)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MOU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관련 사전 보고 이후 미국 측과 협의가 필

요하고, 협의 완료 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사업을 선정, 국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9월 중 송금까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기에 무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미투자 관련,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첫 투자금 송금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한미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측이 3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략투자 MOU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0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